



7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실버취업 박람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인 안내판을 쳐다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65세 이상 뽑는 업체 단5곳 뿐”

■ 노인 우롱한 ‘실버취업 박람회’

나이 제한에 이력서도 못내고 돌아가 업체 대부분 “생산성 떨어진다” 기피

이력서도 못 내보고 간다”며 아쉬워 했다.

김철수(69·광주시 서구 농성동) 할아버지도 위험률 취급인가·보일러 관리·방화 관리 면허 등이 있었지만 이력서를 내보지도 못하고 함께 운 부인(64)의 것만 내밀고 돌아서야 했다. 다행히 청소용역 회사가 나이 제한이 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업체 중 연령제한이

이날 박람회에서는 66개 업체가 참가해 378명의 노인들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 27개 업체는 45개 직종·202명,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가 대신 이력서만 접수하도록 한 39개 업체는 53개 직종·176명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한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없는 곳은 건물청소·경비를 담당하는 (주)케이디엠엔에스 등 3곳 뿐이 있고, 61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19곳에 불과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광주남구시니어클럽, 씬엔엠산업개발(주) 등 5곳에 그쳤다.

업체 관계자는 “실제 채용하는 노인은 면접 기준보다 더 낫다”며 “나이가 많으면 생산성이 낮고, 딜릴 위험이 커서 되도록 기피한다”고 털어놨다.

지난 2007년 현재 광주·전남 전체 인구(325만1천711명) 중 65세 이상은 13.9%(전국 평균 9.92%)인 45만 1천599명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매매상 등 107명 적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전기충격기로 중고차 주행거리를 단축시켜 준 강모(41)씨와 기록이 조작된 중고차를 비싼 값을 받고 판매한 김모(45)씨 등 매매상 10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부터 중고차 매매상에게 대상 8만~30만원을 받고 400여 대의 주행거리를 조작, 8천여만원을 쟁기 혐의다.

김씨 등은 주행거리를 줄인 중고차를 비싸게 팔고, 성능·점검 기록부를 하위로 작성해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쟁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목포~무안공항

금호고속 내일부터

하루 4차례 운행

금호고속(대표 김성선)은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에 맞춰 광주와 목포에서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신규노선을 오는 9일부터 운행한다.

광주와 무안공항, 목포와 무안공항을 잇는 노선은 각각 하루 4차례 운행한다.

광주발은 경유지 없이 무안공항을 직통운행하고, 목포발은 목포터미널에서 부안을 거쳐 무안공항에 도착한다.

광주~무안공항간 운행시간은 광주발이 오전 7시30분, 10시, 12시, 오후 4시25분이며 무안공항발은 오전 8시50분, 오후 12시20분, 2시, 4시 30분에 출발한다. 8일 개통하는 나주~무안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요금은 광주에서 무안공항이 4천800원이다. 소요시간은 1시간.

목포~무안공항간 운행시간은 목포발이 오전 7시40분, 10시20분, 오후 12시10분, 5시30분이며 공항발은 오전 9시, 오후 12시10분, 2시10분, 6시40분에 출발한다. 요금은 목포에서 공항까지 3천300원이고, 무안에서 공항은 1천300원이며 소요시간은 50분.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겨울오는 길목 입동(立冬)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 구름 많겠디.

다.

광주	구름	조금	8~20°C
목포	구름	조금	10~18°C
여수	구름	조금	12~19°C
완도	구름	조금	9~20°C
구례	구름	조금	6~21°C
해남	구름	조금	6~20°C
장흥	구름	조금	6~20°C
고성	구름	조금	6~20°C
순창	구름	조금	6~20°C
광진	구름	조금	6~21°C
전주	구름	조금	6~20°C
남원	구름	조금	2~20°C
혹선	구름	조금	13~17°C

서해남부

안나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만나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안나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만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0:45 셀룰 < 13:14

여수 밀물 < 08:12 셀룰 < 01:50

20:13 14:13

▲해뜸 07:00 ▲해침 17:32 ▲달듬 05:17 ▲달침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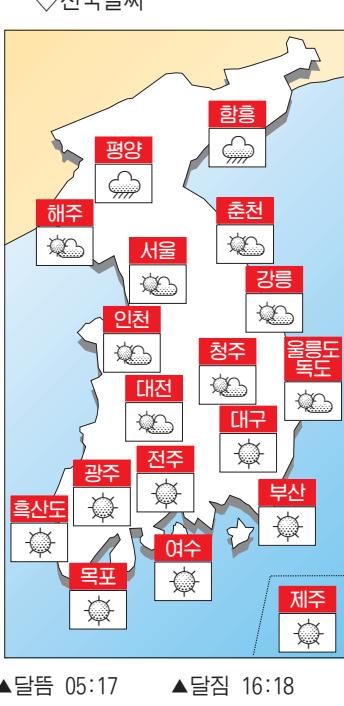
◇주간날씨

날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7/18 6/16 5/14 5/16 6/17 6/17

11월 8일
(음 9월 29일)
◇전국날씨



특목고 입학 동시 전형 적극 추진

2009학년부터...내신반영 40% 이상 확대

2009학년도부터 외국어교과 과학, 국제도 등 특목고 입학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시도 부교육감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고교교육 혁신 기획단’ 회의를 갖고 2009학년도부터 적용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안 기본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고 입학전형 개선 기본안에 따르면 외교과 과학과 국제도 등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화

/연합뉴스

전남대·조선대 시간강사 295명

광주·전남 첫 ‘차별 시정’ 신청

한 처우를 받는지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시정지시를 받고도 거부할 경우 1억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재호(조선대) 교수는 “같은 일을 하고도 호봉제를 적용받는 전임강사는 연봉 5천여만원을 받지만 시간당 수업료를 받는 시간강사는 20% 수준인 1천만원이 전부”라며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시간강사들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못믿을 중고차 성능 기록부

광주 소비자 42% ‘성능 불량’ 피해

사고 유무 하위 기재도 많아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주고 받어야 하는 ‘중고차 성능기록부’가 형식적으로 교부되거나, 사고 유무를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최근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시민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1.7%가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매매상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중고차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성능불량’ 피해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고 유무 허위 기재(27.3%) ▲기타(21.2%) ▲주행거리 조작(9.4%) 순이었다.

중고차 구입자들의 37.3%는 ‘성능기록부가 소비자 피해를 부추긴다’고 답했고, 성능기록부의 품질보증 자료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선 40.4%가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차량의 정비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기재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33.2%)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④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7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1000여 건의 주택을 대상으로 출판되는 실무집이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실무이론 → 학습문학 및 문제집 → 출판교과점 → 학습

개강 11월 12일 연예원특혜 50명 선착순 국비무료

공인중개사전본집 361-8111
전국중개사전본집 520-8111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1월 12일
기초이론 강좌
고용보험 관급과정
현재 접수중

광주고시학원 본점 227-0029
인터넷 000-0000

담배똑! 독소안녕~

생명과 우울증 선별점 학교 대학원 기관 학술학술원 연구원 기관
국립전시회 광주 KBS, MBC, YTN, TV뉴스 일 각연은 광주보도

7일 지노위에 따르면 전남대 176명·조선대 119명 등 시간강사 295명이 ‘전임강사에 비해 임금 산정 및 강의실·휴게실 배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노위는 60일 이내에 ▲시간강사와 전임강사가 동일한 근로자 인지 여부 ▲동일하다면 시간강사가 불리